



열국의 심판 외

©아세르 인트레이터, 2009년 6월 21일

이란의 민요 (民擾)

이번 주 중동 뉴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흐마디네자드의 부패된 재선에 대한 이란 국민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위는 벌써 오늘로 9일째입니다. 시위를 하는 많은 젊은이들은 자유를 위해 목숨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신문들은 이 문제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권은 사건 보도를 위해 외국에서 오는 모든 언론을 차단하려 했지만, 개인 “블로거”들이 사진과 기사를 인터넷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시위 중 총에 맞아 죽은 젊은 이란 여성의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세계를 경악케 했습니다.

네타냐후의 발언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주 중동 평화 협정에 대해 수 차례의 역사적 발언을 했습니다. 분쟁의 근원은, 기본적으로 아랍 민족 (무슬림이 더 나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이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증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평화가 이뤄지려면, 공적이고 법적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 이스라엘이 땅을 양보함으로 인해 평화에 진척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둘째로, 그는 이스라엘이 이 땅에 거주할 권리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반응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조상들 곧 3,500년 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 간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수년 간 정치적 토론에 등장하지 못했던, 영적이고 언약적인 논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팔레스타인이 무장 해제를 하고 새로 이스라엘의 정치계와 뜻을 같이 하는 새 온건-보수적 국가를 세운다면, 이스라엘은 그들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모두의 의견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관점을 나타냅니다.

열국의 심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열국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묘사하는, 길고도 꽤 읽기 어려운 예언서가 히브리 성경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결합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이 모든 구절들을 훑어볼 때, 몇 가지 주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일정한 패턴을 띄게 됩니다.

심판

이 땅의 나라들은 하나님께 심판과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열국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들의 최종 반역은 이스라엘에 대한 연합 전쟁으로 표출될 것입니다. 그들의 즉각 심판은 그 전쟁에서의 과멸로 임할 것입니다. 예컨대, **이사야**는 바벨론과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14장**에서, 모압에 대한 심판을 **15-16장**에서, **시리아 (다메섹)**에 대한 심판을 **17장**에서, **에티오피아 (구스)**에 대한 심판을 **18장**에서 **이집트**에 대한 심판을 **19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중보

그러나 이 심판의 예언에는 긍휼이 없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중보 가운데 울며 그 나라들을 구원하길 원합니다. 예언들은 경고로 된 것으로, 사람들이 회개하여 우리 자비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사 15:5).”** 그러므로 우리는 선지자들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열국에 임하길 기도해야만 합니다.

남은 자

세계 각국 내에는 참된 성도들로 구성된 남은 자의 무리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되지만, 의로운 남은 자들은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긍정적 미래를 안고 있습니다. 남은 자의 숫자는 꽤 작겠으나, 늘 남은 자는 존재할 것입니다.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 사 16:14.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같이 되리라” - 사 17:3.** 그래서 예언에는 이중적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나라 전체에 대해서는 심판이지만, 남은 자를 향한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 우리는 열국이 심판 받으리라는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 받는 자의 숫자와 남은 자에 속할 사람들의 비율은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랑, 기도, 회개, 예언적 경고와 전도로 변화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과 남은 자의 패턴은 바꿀 수 없으나, 각 무리의 규모는 달라질 수 있고 그 숫자는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각국이 심판을 받을 심판과 각 나라 내 남은 자들의 운명은 다릅니다. **스기라 14장**을 보면, **“열국”**이 2번 등장합니다. **2절**에서는,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과 싸우러 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16절**에서는, 각국의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경배 드리러 올라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서 11장**에서, 각국의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에

접붙여지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세계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나, 그 중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접붙여질 것입니다.

[주: 이러한 영적 재조정은 권위의 이양과 관련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릴 법적 권리를 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 예슈아께서는 그 권세를 확립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슈아께서는 왕국의 권세를 1세기 메시아닉 사도들에게 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국 계약권을 열국의 성도들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행 15, 엠 3). 오늘날 그 패턴은 역전이 됐습니다. 교회가 영적 권세를 이스라엘의 회복된 메시아닉 사도 공동체에 다시 전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를 통해 예슈아께서 돌아오사 이 땅을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 23).]

오늘

이 예언들 중 다수가 이전 세대에는 “봉인되어 (거의 이해가 불가능)” 있었으나, 우리 세대 가운데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 “봉인”이 풀어지고 예언들은 우리 목전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이스라엘이 나라로 회복되었음.
2. 열국이 이스라엘에 분노하고 있음.
3. 복음이 전세계 나라에 전해지고 있음.
4.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남은 자들이 회복되었음.
5. 열국의 거듭난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운명을 같이 하는 동맹을 맺고 있음.

이제 우리가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선포할 때가 이르렀습니다.